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7화)

곡괭이 자루가 서너 개 부러질 정도로 매질을 당하는 시련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1) 주일예배 인도하다가 죽음의 고난을 당함
- 2) 전쟁 포로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 3) 북으로 북으로
- 4) 필사의 탈출
- 5) 신양리 형무소의 독방생활
- 6) 총살당하다

2) 전쟁 포로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인민군으로부터 석방되어 집에 와 있으니, 일곱째 천사가 유능한 청년이라는 것을 안 인민군은 무슨 대화다,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일곱째 천사에게 나와서 자기네 일에 협조하라고 채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거절하다 보니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고로, 자전거에 보리쌀 한 말을 싣고 김포를 떠나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랑진쫄 오니까 유엔군 비행기가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폭격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인데, 하늘을 보니 집채만 한 포탄이 머리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봇대를 붙잡아야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버리고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를 부동켜안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는 큰 연못 정도의 웅덩이가 파였는데, 파편이 비오는 듯하며 폭풍으로 가까운 건물이 파괴됨은 물론 멀리 있던 건물의 유리창까지 다 깨지는 것

이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가 전봇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폭풍에 날아가 죽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여 하숙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가서, 인민군이 들이닥치면서 일곱째 천사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너, 조희성이지? 손들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를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로 끌고 갔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골수분자였던 하숙집 주인이 인민군에게 고해바치기를, "방금 우리 집에 하숙하는 대학생이 와 있소. 그의 형이 수도국의 경찰복장을 하고 가끔 들러 동생을 만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흑독한 고문에도 경찰관 형이 있는 곳을 끝까지 붙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내다보는 하나님께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전쟁이 치열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곱째 천사를 서울에 그대로 두면 필사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숙집 주인의 마음을 강박하여 일곱째 천사를 인민군들에게 넘기게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잡혀간 곳이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 건물 지하실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 가운데에는 백열등이 달려 있고 밖으로 나 있는 조그만 창에선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서늘하고 음습하여 공포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들은 이제 스물 살밖에 안 되는 학생인 일곱째 천사의 양쪽 무릎으로 네모난 마차철주를 끼워 놓고 꿇어 앉혔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너무 아파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들은 일곱째 천사가 못 일어서도록 한 사람이 팔 하나씩 양쪽에서 잡고 내리누르며 또 다른 사람은 구둣발로 무릎과 허벅지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안다. 얼른 있는 곳을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말을 하지 않자,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곡괭이 자루로 일곱째 천사를 인정사정없이 깨 패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질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흑독한 고문이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형님은 김포 고향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이 뻔합니다. 차라리 하나나 희생되어 죽는 것이 낫지 온 가족이 몰살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말을 못하듯 허를 깨물었습니다. "옥"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피가 터지자 인민군들은 "이 간나 새끼 악질 반동이구만" 하며 여섯 명이 있는 힘을 다하여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지질 정도로 매질을 가하다가 힘들면 교대로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계 때렸던지 곡괭이 자루가 서너 개 부러졌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양동이에 찬물을 떠 와서 끼여어 붓고 꿈

틀거리면 또 곡괭이 자루로 사정없이 때리고 또 찬물을 끼얹고 하여 거의 죽을 때까지 매질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일곱째 천사의 온 몸과 팔다리가 마치 개구리가 죽을 때 다리를 떨다가 잠시 후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폭하고 꺼지는 상태가 되니, 그제야 그들은 일곱째 천사가 죽은 줄 알고 몽둥이질을 그치고 가마니를 쓰러진 몸 위에 덮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이찬영 목사의 사모님이 목격한 증언

그 당시 흑석동 감리교회 이찬영 목사의 사모님이 목격한 증언에 따르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에는 마치 돌에 맞은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다리를 떨 떨고는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 교회의 청년 지도교사가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떨떨거리며 따라와, 인민군 본부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틈으로 일곱째 천사의 매 맞는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돌아가 남편 이찬영 목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찬영 목사는 일곱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 반가와 손을 잡고는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니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한 시간 반가량 인민군에게 팔매를 맞았는데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생명과 몸과 모든 전체를 맡기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까닭에,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일곱째 천사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일곱째 천사는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질에 온몸이 얼거나 부었는지 혈렁한 여름 모시적삼이 꼭 끼였으며 옷이 터져 그 사이로 살이 여기 저기 튀어나왔습니다. 한참 애타게 쓰다가 간신히 몸을 뒤집는 데 성공하여 조금씩 기어 계단을 올라가니, 인민군 장교가 지나다가 일곱째 천사를 보고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간나 새끼는 뭐야?"
"이 새끼는 악질 반동분자입니다."
"그럼, 마포 형무소로 이송하라우."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도중 노랑진 쫄로 변해서 고모부와 눈이 마주치다

이리하여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마포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마침 인민군 장교가 일곱째 천사와 맞닥뜨리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를 공군기의 무차별 폭탄

투하와 빗발치는 총탄세례가 난무하는 곳에서 건져내어 비교적 안전한 북쪽으로 옮겨놓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포 형무소까지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도중 노랑진 쫄로 변해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고모부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체 할 수 없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인민군에게 끌려간다는 표시로 피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서 도로변에 던졌습니다. 지나쳐서 얼마쯤 걸다가 뒤돌아보니, 고모부가 피 묻은 옷을 얼른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영등포에 살고 계셨던 고모부님이 그 옷을 주워서 김포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옷은, 중학생(당시는 5년제) 시절 일곱째 천사가 동네 사람들을 조종봉 사당에 모아 놓고 야학에서 공부를 가르쳤을 때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일곱째 천사에게 선물한 길쌈모시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마다 한글교육을 시킬 때였습니다. 그 길쌈모시 옷이 일곱째 천사의 것이 분명하므로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 인민군에게 붙들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일곱째 천사의 부친은 아들의 소식이 전혀 없었고 죽은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의 시신만 있으면 들쳐보며 아들의 시체를 찾기 위해 서울 시내 전역을 누비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박한수

"독수리와 같은 저 단군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3천 2백년 전에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새긴 고조선 수막새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문화가 번성한 이집트에서 벽돌과 기와를 굽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주하여 기원전 1200년경에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한민족의 기원을 알릴 목적으로 창안한 수막새에 이스라엘의 단지파와 관련한 메시지를 당시 사사시대에 사용한 문자로 새겨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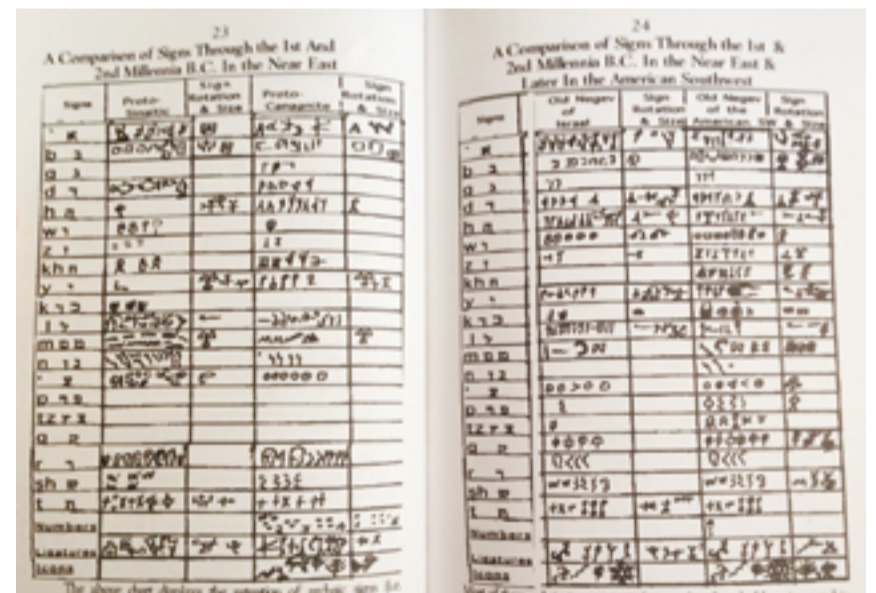
평양 강남구 원암리(猿巖里)에서 출토된 꽃

무늬수막새(동경국립박물관 소장)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훼'라는 올드네게브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또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성경 사사기 18장에 단지파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음을 해명하고 있다.

또 다른 고조선 시대의 오염화 수막새에는 시리아에서 채집한 무궁화 씨앗을 한반도에 가져와 널리 전파하려는 메시지의 문자가 새겨져 있

다. 그런데 무궁화 나무의 어린 묘목을 추위로 부터 잘 보호하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평안도 이북 즉 함경도나 만주에서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무궁화 재배가 불가능하였고 고조선의 수도가 자리잡고 있는 평안도 대동강 유역에서는 추운 겨울에 어린 가지를 보살피면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하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에 새겨진 문자 해석은 도표로 대신한다.* 박태선기자



원시 시나이 문자, 원시 가나안 문자와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문자 그리고 아메리카 서남부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비교 -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 p23, 24

성막 중심의 4군영 배치도

- Dan: eagle (יהודה Judah)
- Judah: a lion (אריה a lion)
- Ephraim: ox (אפרים Ephraim)
- Reuben: a man (ראובן a man)

◎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10]
◎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 4:7]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

수막새의 문자(文字) 문양 해석

독수리와 같은 단군의 저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Those people of Dan like eagles shall be here to stay

① ② ③ ④ eagle 독수리
Old Negev of American SW
Old Negev of Israel

⑤ ⑥ ⑦ ⑧ Dan 단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
Old Negev of American SW

⑨ ⑩ ⑪ ⑫ those 그것들, 저 사람들
Old Negev of American SW

⑬ ⑭ ⑮ ⑯ be here to stay 여기에 머물게 되다(정착하게 되다)
Old Negev of American SW

유물명칭: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 국적/시대: 한국 / 고조선(BC 12세기경), 지름: 14.6cm, 두께: 2.7cm
소장처: 경희대학교, 유물번호: 경희대 301412-000
※ 동명(동명)의 수막새(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008464-003)가 평양 토성리(土城里)에서 출토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네 군단(軍團) 깃발의 문장(紋章)과 바탕색깔이 구분되었는데, 4군 가운데 북군이었던 단지파의 깃발은 흰바탕에 독수리였다고 한다.